

## 추락하는 인륜... "도덕 재무장하자"

### 가정윤리 파괴범죄 잇달아... 종교계 교화 앞장서야

미국의 경제가 극히 어렵던 49년에 발표된 아서 밀러의 <세일즈 맨의 죽음>은 세일즈맨이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스스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내용이라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지만 비정한 한 아버지는 보험금 천만원을 위해 아내의 손가락을 잘랐다. 가족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모욕하는 사건이었다.

아버지를 살해한 고등학생,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짐승같은 남편을 살해했다는 30대 여인, 보험금이나 불륜을 덮기위해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요구르트에 농약을 넣어서 장애아인 아들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다. 그러나 금쪽같은 이런 사건들이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 윤리의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의 손가락을 잘단한 김중렬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건들은 가족공동체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나타난 가족윤리의 붕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있는 황금 만능주의와 IMF관리체제라는

현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사회학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대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각종 부패현상이 우리 사회 전체 도덕성은 물론 가족윤리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자 근간이 되는 가정의 붕괴는 '뿌리부터 썩어가는 나무'의 고사(枯死)를 예견하고 있어 사회적 처방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고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IMF관리체제를 불러온 원인이자 위기극복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법·제도의 정비와 이에 따른 사회 정의 및

윤리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속되는 경제사정 악화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전 국민의 철저한 도덕적 각성운동과 이를 위한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사회의 정신적 규범을 제공해 온 종교계는 이수리(阿修羅)장이

된 오늘의 '윤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덕 재무장의 선봉에 나서야 한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공동체 정신의 바른 뜻을 되새기고,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도덕과 윤리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정신회복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 불교의 눈 오계 지키기로 가정화평

"어느 것이 어머니요, 어느 것이 새끼인가? 풀을 주어 먹게 해 보아라. 어머니는 반드시 풀을 맡아 새끼에게 줄 것이니라." <잡보장경> 보살문을 태내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는 분통적인 부모의 도리를 잊은 비정한 아버지였다. <잡아함경>의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는 것을 가족이라 한다"는 가르침을 왜 몰랐을까.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쏠아오게 마련"(아난사바불길경)인 것을. 이러한 때, 오계파지(五戒巴持)운동의 확산은 더없이 절실한 도덕 재무장의 방안이다.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사탕 울렁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 5계의 수지와 실천 및 확산운동은 가정과 국가·인류의 화평을 건설하는 시급성업에 불림이다.

## 시론 인술의 방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최근의 일이다. 너무도 소설같은 이야기라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40이 넘어서 결혼하여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가 갈망한 대로 아내는 열달만에 탄생한 아들까지 낳았다. 그 아내 역시 재왕질계 수술의 아픔도 잊은 채 기분이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 다른 산모보다 회복과 퇴원이 빨랐다. 그 부부는 남모르는 행복의 꿈속에서 아들을 번갈아 보며 더욱 즐거워 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입이 들어갔던 것이다. 지랄이면 소리가 새어 접차 말을 잃었고, 웃으면 더욱 일그러져 웃음을 잃었다. 그 남편은 당황하다 못해 속으로 울었다. 말없이 눈을 흘리는 아내를 데리고 제일 큰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방면에 권위 있다는 담당의사는 이쪽의 이야기를 듣고 대강 진단하더니 남편의 일처럼 단언하는 것이었다. 전문적 의학용어를 써가며 증세가 아주 희귀한 사례로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이 그 의사의 소견이었다. 그 의사는 그렇게 문제만을 제기하고는 위안과 희망의 말 한마디 없이, 치료의 책임조차 알아서 하라는 식이



사재동  
 <충남대 교수·국문학>

“  
 사회지도층은  
 엄격·냉엄하게  
 현 위기 진단  
 국민에 희망을  
 ”

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심신의 질환을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이런 의사는 정신의학, 심리요법을 체득하고 종교적 구제방편까지 체득, 활용한다. 그러기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자라도 안정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술에 최선을 다하여 죽음의 길까지 밝혀주고 있다.

오늘의 총체적 위기에서, 정치가·행정가, 교육자 등 사회 지도층은 모름지기 이 인술의 대방편을 배워야 한다. 먼저 국가의 위기, 국민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엄격, 냉엄하게 진단하되,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시련에 우선하여, 종교적이고 인본적인 시정으로 그 위안과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다. 인술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자고로 인술의 방편이 거룩하게 운용되어 온다. 외술은 과학중에서도 첨단과학이어야 하므로 진단은 엄밀하고 냉철해야 된다. 그러나 그 치료 시술에 있어서는 대 방편을 써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두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 완전히 의학만을 내세워 환자의 육신을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전문적 의술에 체

## '火葬서약' 폭넓게 확산

### 종교·사회단체대표 30여명 동참...범시민운동으로

꼭 흙속에 묻히는 것만 영원(永眠)일까. 4대(大)로 흩어질 육신을 화장(火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과 김광욱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 서영훈 신사회공동선 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 등 종교·사회단체 지도자 30여명은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는 서약을 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종교·시민단체 지도자들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해동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장묘문화 개선관련 시민단체대표 간담회'를 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숭신수배해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로 서약했다.

참석자들은 "매년 여의도만한 크기의 면적이 묘지로 늘어나고 있어 매장장소의 장묘문화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는 서약운동을 벌이는데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 서울시장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실천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있어야 장묘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이 시민운동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조묘행정 주무관직인 보건복지부는 '부 전체가 화장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6일만에 김모임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전체 직원의 38.7%인 1백74명이 화장서약서를 썼다. 불교계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와 우리는선우 백련상조회가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서약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회색에서 녹색으로"

### 전국환경운동가 워크숍

불교환경교육원, 24~26일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장원)가 주최하고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범륜스님)이 주관하는 98 전국 환경운동가 워크숍이 24~26일 경기도 장흥 세종수련원에서 '회색에서 녹색으로'란 주제로 열렸다.

2백여명의 환경운동가가 참여하는 대화마당(한국사회의 위기와 환경운동의 철학)의 30여개 토론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국립공원의 현실과 보전전략(실악 녹색연합) ▲종교와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LETS) 운동(불교환경교육원) ▲금강산 개발의 원칙과 방향(녹색연합) ▲환경호르몬문제와 대응전략(환경운동연합) 등. (02)765-6324 김재경 기자

## 한국도 온실가스감축 분담

### 내주 교토의정서 서명...환경보호 공동보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촉진하려는 선진국들의 회개도국 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 온실가스감축 분담의무를 규정하는 '교토(京都)의정서'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공감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서명키로 했

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는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 회담의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한국 역시 0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동유럽 11개국 등 38개국이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1012년까지 90년의 배출량에 비해 평균 5.2%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 美 '아들-딸 선택' 인공수정술 개발

### 성비 파괴 가속 우려

미국에서 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대로 임신할 수 있는 새 인공수정술이 개발돼 성비(性比)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10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소재 '유전학 인공수정 연구소'의 에드워드 퍼거 박사팀이 XX염색체는 딸, XY염색체는 아들이라는 차이점에 근거해 정자중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Y염색체 정자와 딸을 낳게

하는 X염색체 정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아들 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슈타니파타>에는 "세계는 業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 또한 業에 따라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지은 바 業은 因과 緣이 모여서 성숙하듯이, 사람의 성별 또한 인연에 따라 존재함을 관조해야 할 것이다.

김재경 기자

###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화  
 개금 불상, 시왕개재,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무렵 김성산 합장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

### 인재불사 공개권선 및 고불식 안내

1. 인재불사 안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은 철저한 불교적 소양과 신행을 갖춘 능력 있는 불자 인재들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들의 모범적 행동은 불교가 사회속에서 현실화하고 인류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이것은 모든 불자들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인재불사연구원은 고시생포교를 통한 불자 사회지도층 양성을 원력으로 90년 5월 모임을 결성한 이래 오늘날까지 묵묵히 포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사찰이나 어떠한 단체와도 무관하며 관계되어있지 않고 자립적 범위안에서 역량만큼 고시생포교에 정진할 뿐입니다. 현재는 문서포교의 1단계를 진행중이며(97년 3월 첫발간)불사 강석주 큰스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며 10월부터는 제2단계 실질적인 내용의 인재불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2. 고불식 안내

일간지의 취재로 언론에 의해 타의적으로 공개된 저희 활동은 이후 타종교의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벗어야 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9월 27일 인재불사연구원은 고계 큰스님들을 모시고 고불식을 할 예정입니다.

3. 최초의 권선(공개)

인재불사를 위한 고시촌 포교에 뜻을 함께할 분들의 정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주의 공덕이 실질적임이 여실히 검증될 것입니다.

무렵 김성산 합장

인재불사연구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77-2 광운빌딩 503호

■ 전화: 888-3077,3078 ■ 팩스: 888-3078  
 ▶ (국민은행) 812-01-0134-690 예금주: 김성산  
 ▶ (상업은행) 167-08-046862 예금주: 김성산

## ♣ 불/자/정/보(사찰) ♣

### 사찰 안내

- ◆ 위치: 경기도 용인시 (대로변 산민)
- ◆ 평수: 대지 204평, 사용평수 280평
- ◆ 건물구조: 연면적 160평, 지하1층, 지상 3층 (현대식 신축건물)
- 3층-법당 40평, 2층-요사, 중무소 40평, 1층-전통차집 40평, 지중-공양실 40평 (채광, 통풍양호)
- ◆ 매매가액: 6억 5천만원
- ◆ 특징: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포교 최적도량임

0331)263-0911/015)272-8895

### 전통 고찰 안내

- ◆ 위치: 경기도 강원도 경계 지점 ◆부지: 2만 7천평
- ◆ 건물: 법당 25평(우3포) 목재단청, 대웅전, 선방, 용왕각, 무량수전, 지장전(40평 목재), 주지실, 공양간 요사(40평), 건물 총 9동/창건 1600년전 ◆부속물: 석등, 석담, 미륵석불, 관세음보살(석입불), 연지
- ◆ 매매가액: 8억 5천만원
- ◆ 특징: 수려한 산세와 정경 자연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하명당 자리로 정법대로 운영하심 스님에 시세이하 가격으로 모십니다.
- 본 사찰은 공히 부처님 정법도량임으로 스님의 무속인, 일반인, 보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전국 사찰, 포교원, 사정성 인도하심 스님이나 인수반역스님은 부담없이 마시고 즉시 연락바랍니다.

21세기 불교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조법사합장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 사찰(급) 안내

- ◇ 위치: 경상남도 ◇대지: 120평
- ◇ 가격: 6천 5백만원

015)7903-8753/0597)964-1662

### 토굴·선방·암자터 안내

- ◆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리산 깊숙한 명당
- ◆ 영원사, 실상사, 감대, 벽송암,백장암 사이에 있으며 천왕봉이 안산이 되는 숨겨진 성지명당.
- ◆ 부지: 약 2천여평

호출 012)587-6233

### 사찰 안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 전세도 가능.
- ◆ 위치: 전북 군산시 월명공원내

0654)461-4152/011)579-9865